6월 항쟁 중심 원각사에 기념비 '우뚝'

9월 7일, 경내 제막식 봉행
미륵사지 당간지주 모티브로
5 · 18, 6월 항쟁 의미 되새겨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원각사는 9월 7일 6월 민주항쟁 기념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광주지역 불교계의 중심지였던 원각사에 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졌다.

원각사 6월 민주항쟁 기념비 건립위원회(위원장 도제 스님, 이하 건립위)는 9월 7일 광주 원각사에서 기념비 제막식을 열고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제막한 기념비는 높이 3m의 화강석 조형물로 당간지주와 연꽃, 화염 등 상징적 이미지를 담아 제작됐다. 조각가 윤선종 작가는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를 모티브로 민주화 이념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평화를 상징화했다"고 설명했다. 본체에는 원각사 6월 민주항쟁의 역사성과 가치가 새겨졌으며, 좌우면에는 동참자 명단이 각인됐다.

제막식에는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 도제 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부원장 도우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와 정준호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정진백 공동건립위원장,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원각사는 6월 항쟁의 심장부였다. 5·18 추모법회 당시 경찰이 난입해 성전을 유린했으나, 이후 스님들과 청년 불자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며 항쟁의 선두에 섰다"며 "오늘 제막된 기념비는 억압과 폭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은 불굴의 원력을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념비가 우리 불교가 걸어온 민주주의의 길을 증명하고, 후세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산 교육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고 스님은 법문을 통해 "기념비는 선열들의 헌신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남겨 후손들이 그 정신을 깊이 새기게 하는 등불"이라며 "그 정신이 광주 불교계의 맥을 타고 더욱 굳건히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자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념비를 조성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소운 스님도 "원각사 기념비는 깨어 있는 불교, 민중과 함께한 불교의 증표"라고 평가했다.

원각사는 1987년 5월 18일, '광주항쟁 민주영령 추모제'를 열던 중 경찰이 법당과 요사채에 난입해 최루탄을 난사하는 사건을 겪었다. 당시 금강 스님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청년 불자 13명이 연행됐다.

이에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 대한불청 전남지구, 대불련 전남지부 등은 '불교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규탄법회와 단식농성을 전개했고, 전국 승가단체와 대학이 호응했다.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스님 523인은 당시 전남도경국장과 경찰서장을 고발해 공식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원각사는 매년 5.18민중항쟁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꽃무릇으로 사찰·지역의 길을 잇다

지역 불교人 함평 용천사 주지 혜용 스님

꽃무릇 수목공원 · 축제
지역과의 상생모델 제시


혜용 스님이 꽃무릇 수목공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함평 용천사(주지 혜용 스님)가 붉게 물든 꽃무릇으로 새로운 포교의 길을 열고 있다. 줄어드는 종교 인구와 탈종교화 흐름 속에서 사찰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길을 모색해 온 주지 혜용 스님이 '꽃무릇 수목공원'과 '꽃무릇 축제'를 포교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혜용 스님은 새로운 포교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 "앞으로 20~30년 뒤, 한국 사찰도 유럽의 성당처럼 박물관화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고백한다. 급격한 산업화·정보화 사회 속에서 종교는 빠르게 영향력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도심 사찰과 벽지 사찰이 같은 전략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지역 맞춤형 포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용천사 꽃무릇 수목공원은 이 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스님은 30여 년 전부터 '사찰의 미래 동력은 수목장·자연장과 같은 생태 장묘문화'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단순한 묘역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져 누구나 찾아와 위안을 얻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혜용 스님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목장 바닥을 전부 꽃무릇으로 심은 곳이 용천사"라며 "이는 묘역이면서 치유와 힐링의 공원이며, 앞으로 한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태 수목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년 뒤에는 묘역 전체가 꽃무릇으로 뒤덮여, 조화(造花)가 필요 없는 살아 있는 꽃의 동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수목공원 개관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스님은 "3년 동안 군청과의 법적 다툼 끝에 겨우 허가를 받았다"며 고충을 전했다. 처음에는 2800평 규모로 계획했으나, 환경영향평가와 법적 장벽에 막혀 최종적으로 600평 규모의 허가만 얻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사찰이 행정과 법률 문제를 홀로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종단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공된 수목공원에는 600~800기 봉안이 가능하다. 향후 지역 여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쌓이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님은 "이곳이 납골묘역일 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함께 하는 생태공원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꽃무릇은 불교와도 인연이 깊다. 예전에는 꽃무릇 즙을 탱화와 단청의 방부제로 활용하기도 했다. 혜용 스님은 꽃무릇을 "정열적이고 희생적인 꽃"이라 설명한다. 꽃대가 70cm 가까이 치솟아 붉은 꽃을 피우는 동안 향기는 잃지만, 그만큼 온 힘을 다해 피워내는 모습이 곧 '영가를 위한 봉헌'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추석 무렵 만개하는 붉은 꽃무릇은 차례와 함께 불교적 공양의 의미도 갖는다.

1999년 시작된 꽃무릇 축제는 용천사를 전국에 알린 계기가 됐다. 불과 수백 명에 그쳤던 방문객이 이듬해 40만 명으로 늘어났고, 현재는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함평불교사암연합회장으로서의 행보도 주목된다. 혜용 스님은 관공서 불자회를 창립하고 수해복지기금 마련, 지역 현안 대응 등 불교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스님은 "열악한 사찰들이 많은 지역에서 연합회의 역할은 크다"며 "불교가 지역과 상생하는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출가, 무분별심으로 나아가는 길"

오대산 월정사, 제69기 출가학교 졸업식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8월 31일 제69기 출가학교(학교장 자현 스님)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제69기 출가학교에는 32명(남 22명, 여 10명)이 참여해 21일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주지 정념 스님은 "요즘 현대인들이 21일간 한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란 쉽지 않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출가의 정신으로 자신을 비워내고 졸업을 맞이했다는 것은 지극한 마음, 하심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출가학교 생활은 자기중심의 분별심을 내려놓고 무분별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인간의 문명이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탐욕·분노·어리석음이 낳은 고통은 여전히 깊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분별심을 비워내고, 자비와 평등의 마음을 회복하는 수행에 있다"고 설했다.

월정사 출가학교는 2004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3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실제 출가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 출가자 감소 시대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월정사 출가학교는 오는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3기 낭만출가학교를 운영하며, 제70기 출가학교는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마하위하라, 1기 불교대학 입학식

9월 6일, 입학식 및 개강



아산 스리랑카 사원 마하위하라(주지 담마끼띠 스님)는 9월 6일 불교대학 1기 입학식 및 개강식을 개최했다.〈사진〉 마하위하라가 올해 처음으로 개설한 불교대학에는 30명의 신입생이 등록했다.

주지 담마끼띠 스님은 인사말에서 "마하위하라가 건립된 지 10년 만에 불교대학을 개설하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다양한 경전 강의와 명상 수행을 통해 교학과 실천이 하나 되는 배움의 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첫 강의를 맡은 사단법인 한국명상원 묘원 원장은 "위빠사나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이론만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이해해야 하는 길"이라며 "부처님의 법문이 모두 질문과 응답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수행 또한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30명의 신입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함께하는 신행공동체를 이뤄 나가겠다"고 발원했다.

불교대학 1기는 오는 11월 10일까지 '법구경(담마끼띠 스님)', '반야심경과 초기불교 및 화두(박인성 동국대 명예교수)', '위빠사나 명상(묘원 원장)', '특강(휘정 스님)' 등 총 10회의 강의가 이뤄진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총림 송광사, 하안거 해제법회

9월 6일, 백중 회향도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9월 6일 경내 사자루와 대웅전 앞마당에서 을사년 하안거 해제법회 및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방장 현묵 스님과 주지 무자 스님을 비롯한 총림 대중 스님과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장 현묵 스님은 법어에서 "삼복더위에도 자기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용맹정진한 수행자들의 공력이 해제 걸망 속에 알차게 담겼다"며 "해제를 맞아 좌복 위에서 지은 공부를 일상 속 만행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지 무자 스님은 인사말에서 "하안거 수행과 49일간 백중기도 공덕이 선망부모와 뭇 생명들의 해탈로 이어지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법회 후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반야용선을 앞세운 요잡의식이 봉행돼 유주무주 영가들의 천도를 기원했다. 이날 백중 기도정진은 성보박물관 앞마당에서 거행된 소전의식으로 회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백양사, 을사년 하안거 해제법회

9월 6일 대웅전서 봉행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9월 6일 대웅전에서 을사년 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해제와 백중 회향을 겸한 이날 법회에는 수좌 일수 스님과 주지 무공 스님을 비롯해 안거를 성만한 수좌 22명, 대중 스님, 신도들이 동참해 3개월간의 수행을 회향했다.

법문에 나선 일수 스님은 "'내 안에 부처가 있고 부처가 있는 곳에 중생이 있다'는 말처럼 마음을 깨치지 못했기에 중생이지만 간절히 화두를 들고 정진하는 그 자리가 곧 견성"이라며 "더 나아가 확철대오에 이르면 부처님의 자리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정법사, 자비나눔으로 백중 회향

9월 6일 쌀·사료 등 보시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9월 6일 설법전에서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선망부모와 조상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사진〉

주지 광우 스님은 법문에서 "기도와 공덕은 내 가족을 넘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힘이 된다"며 "정법사가 수행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법사는 백중 회향을 신도들이 마련한 모연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산청지역 수재민에게 쌀 1000kg씩 총 3000kg을 전달했고, 유기동물보호소에는 500만원 상당의 사료를 보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가야문화진흥원, 제9회 명상문화축제

9월 7일 김해문화의전당서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해공 스님)은 9월 7일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제9회 가야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축제는 명상과 국악, 무용, 샌드아트, 합창을 한 무대에 담아 시민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고 치유와 화합의 메시지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사장 해공 스님은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 마음의 호흡을 알아차림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축제가 시민들에게 행복한 명상의 세계를 알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읍사암聯, 백운 화상 추모다례재

9월 4일, 정읍 미륵암서



정읍사암연합회(회장 대원 스님, 내장사 주지)는 〈직지〉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일인 9월 4일 정읍 미륵암 특별 법단에서 제3회 백운경한 화상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내장사 한주 대우 스님은 추모문을 통해 "〈직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자 인류 문명사의 위대한 기록 유산이며, 정신문화의 혁명이며 인류의 축복"이라며 "문화가 살아야 사람답게 살수 있음을 깨닫게 하신 백운 스님의 뜻이 온 인류의 가슴에 피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